

 전북발전연구원 <small>JEONBUK DEVELOPMENT INSTITUTE</small>	<h1>보도자료</h1>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담당자	홍보담당 남지나
		연락처	063-280-7117
		홍보담당	남지나/063-280-7117

원도연 신임원장, “연구원의 미래는 소통에 있어”

- 제4대 전북발전연구원장에 선임된 원도연 신임 원장(47)이 오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본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 원도연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발연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다"고 말하며, "도와 각 시군은 물론이고 도의회와 대학, 언론,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면서 의제를 설정하고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포럼,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TFT, 이슈브리핑,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연구자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선정된 기본과제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학회논문게재 등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했다.
- 원 원장은 또한 “PM(Project Manager)방식을 도입해 과제를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전문가를 모아, 전북도의 행정흐름에서 맥락

을 정확히 짚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전북발전연구원장 취임식 계획안
2. 전북발전연구원장 취임인사말

2010.6.29

제4대 전북발전연구원장 취임식 계획안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제4대 전북발전연구원장 취임식 계획(안)

2010.6.30 전북발전연구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원장님의
취임식 행사를 실시하고자 함

□ 일반계획

- 일 시 : 2010.6.30(수) 11:30~12:00
 - 장 소 : 연구원회의실
 - 대 상 : 연구원 전직원(43명)
- ※ 외부초청 인사는 없으며 임원, 연구자문위원에게 공지

- 연구원 임원(이사·감사) : 11명
- 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11명

□ 주요행사

- 축 사 : 전라북도청 행정부지사
- 취 임 사 : 원 장
- 기념사진 촬영 : 행사종료후 전직원 기념촬영/연구원회의실
- 점심식사 : 행사 종료후 점심 / 전직원

□ 세부시간 계획

시 간	행 사	장 소	내 용	비고
11:30 ~ 12:00	취임식	연구원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기획조정실장(이동기 박사) - 11:30~11:32 : 개 회(국민의례) - 11:33~11:34 : 내빈소개(외부 참석자) - 11:35~11:37 : 축 사(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11:38~11:43 : 취임사(원장) ⇨ 꽃다발 증정 : 김민화 - 11:44~11:46 : 사진촬영 - 12:00 : 폐 회 	
12:10 ~ 13:00	점 심	한국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식 종료후 이동 - 12:10~13:00 : 한국집 / 삼계탕(또는 비빔밥) 	

■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신임원장 취임사

전라북도의 유쾌한 반란을 꿈꾸며

- 소통하고 연대하며 함께 전진하는 연구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지난 4년여 동안 같이 고생해준 동료, 선후배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분이 많은데 선택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사님들, 그리고 전라북도 와 김완주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을 벌써 십여년 전부터 해왔지만, 지방은 여전히 발전이 정체 되고 인구는 감소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지방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개성과 다양성이 중시되고 창의성이 곧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창조성은 지방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약속해주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입니다. 반세기쯤 후에 서울 외에 가장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아마도 새만금일 것이라는 점에는 한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늘 저발전과 정체속에 있었고, 활력을 잃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와 열정, 도전과 진취적인 기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의미 있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순수하게 지방출신으로 지방연구원의 연구원장에 처음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이고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지방의 역량이 평가 받는 시험대라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전발연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입니다. 연구원은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도와 각 시군은 물론이고 도의회와 대학, 언론,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면서 의제를 설정하고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개방성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연구원의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포럼,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TFT, 이슈브리핑, 뉴스레터 등이 바로 소통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구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노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교수집단과는 다른 또 다른 영역에서 실천적인 학문을 키워나가는 기능이 연구원에 있다고 봅니다. 교수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박사님들의 연구의지를 보호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 선정된 기본과제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 성과들을 학회에 발표하고 논문을 쓰는 일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연구원의 대부분의 힘과 역량은 지역사회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정책과제에 주어져야 합니다. 전북도의 행정흐름에서 맥락을 정확히 짚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 지방연구원이 갖는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준높은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제수행과 함께 특정 이슈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전북도청과의 관계설정에서 일정한 규칙과 리듬이 필요하고, 각 시군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대학들과 더욱 빈번하고 진지하게 소통해야 하며, 서울의 중앙부처 연구기관들과도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원 내부의 혁신도 쉽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원을 리드할 수 있는 경험있고 능력있는 연구원들을 모시고, 연구원들에게 다양한 연수기회와 안식년제도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의욕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의욕이 앞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절대로 무리

하지 않으며,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늘 긴장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부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합의입니다. 혼자서 앞으로 가지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가치보다 토론과 합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겠습니다.

4년전, 전발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늘같은 날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4년전에는 어깨가 이토록 무겁지는 않았지만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열 배는 더 무겁고 또 무겁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이 무게를 혼자 지지 않겠습니다. 전발연이 거둔 성과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고 함께 나누겠다는 것을 마지막 약속이므로 드립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30

전북발전연구원장 원도연